



2026 VISION

혼혼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성경이야기

안녕하세요, 친구들!

혹시 블록 장난감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집을 만들어 본 적 있나요? 문도 여기 달고, 창문도 저기 달고, 내가 좋아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지요. 장난감은 내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미가는 어머니의 은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었어요.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미가도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예봇과 드라빔을 두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요. 성경은 그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친구들, 미가는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 드린다”고 말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미가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여겼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방법을 앞세운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조금만 거짓말해도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따라오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해요. 우리도 따라 말해 볼까요?

“내 마음대로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요!”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